

전남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나선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본격화 197억원 투입 1만3358ha 지원 자재·농비작물 종자 구입비 등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등 기대”

전남도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나선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만3358ha의 사업량에 197억원 규모의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유기농업자재와 농비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 지력을 증진하고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사업 신청을 통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 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사업대상자는 유기농업자재와 농비종자를 구입한 후 시·군에 공급확인

서, 자부담 지급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업에 따라 공시된 자재로 한정하며 상토는 공시 제품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이며, 다만,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만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금액은 ha당 유기인 증능가 200만원, 무농약인증 농가 150만

원, 일반농가 100만원까지다. 농비작물은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수단그라스 50kg까지 지원한다.

다만 경관보전직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 농지는 농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유사 사업에서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누리집에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유기농업자재 공시 현황 조회뿐만 아

니라 부적합 유기농업자재 명칭, 공시번호 등 부적합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업자재 구입 전, 공시 조회나 스마트폰 간편확인(QR코드) 등으로 사전 적합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력 증진과 유기농업 실천을 유도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민형배,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 개최

“초고령사회... 혁신 의료 시급”

초고속 레이저와 광-음향 기술개발로 의료 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사진)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소장 고도경), GIST 초강력레이저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PAUL, 센터장 김형택), 한국광학회 양전자전자분과(위원장 염동일)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는 김형택 GIST PAUL센터장이 ‘레이저 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선다. GIST APRI 김혜민 선임연구원은 ‘광-음향 의료 진단 기술 현황 및 과제’로 발제한다.

고도경 GIST APRI 소장은 토론자로



참여하며,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 박우진 센터장,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조경오 교수,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염태중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광시스템공학과 이상훈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유재석 교수 등 전문가가 토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형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의료 진단 혁신 기술개발 연구가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백 년 넘게 서구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의료진단기기 시장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2024년도 전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관련기사 1면 **전남도 제공**

광주시의회 “복합쇼핑몰, 지역 상권 상생해야”

행자위, 스타필드 수원 등 견학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스타필드 수원, 더 현대 서울을 방문해 복합쇼핑몰 운영 현황 청취 및 시설을 견학했다.

행자위 위원들은 지난 7일 스타필드 수원을 방문해 시설 견학 후, 스타필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광주형 복합쇼핑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의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8일에는 더현대 서울을 방문, 간

담회를 갖고 더현대 광주를 호남지역의 복합쇼핑몰과 더불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은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지역 특색을 보여 줄 수 있는 차별화 된 쇼핑몰이 건설되길 바란다”며 “이번 선진지 견학에서는 쇼핑 시설 외 문화·레저·휴식 공간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 경험을 통해 도심 속 윈스톱 라이프스타일의 적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추경호

“야 정치공세 물러서지 않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9일 선출됐다.

추 의원은 이날 22대 총선 당선자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70표를 받아 당선됐다.

4선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1표, 3선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추 의원은 22대 국회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 됐다.

추 의원은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정책대결의 승리로 삼겠



다”며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정치의 본연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관계설정을 두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장 민심과 의원 총의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가장 짙은 후보로 꼽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스타트업 20곳 “AI 중심도시 광주이전 희망”

광주시, 파트너십 매칭데이 개최 스타트업-투자사 1대1 상담 실시

광주시가 광주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분주하다.

광주시는 9일 광산구 ‘소셜캠퍼스 온광주’에서 지역 이전 희망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20개사와 오라클벤처투자 등 투자사 3개사,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11월 2024광주창업페스티벌의 사전 교류행사로 광주시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참가기업을 발굴하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

혁신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 창업 관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중심도시인 광주로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이 증가하면서 전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제안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20개사와 투자사 간 투자협약 등 긴밀한 교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또 오라클벤처투자,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빅뱅엔젤스 등 투자사 3곳이 참여해 지역 창업기업과 1:1 만남의 장을 통해 투

자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마련했다.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정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외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사 또는 지사의 광주 이전 때 받게 되는 사업과 지원금, 투자 등 다양한 혜택을 설명하고, 창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연계망(네트워킹)을 통해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이어졌다.

“파트너십 매칭데이”는 지역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발해 대기업 및 투자자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공동 협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매월 시행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집중호우 피해조사... 농업 경영안정 온힘

16일까지 읍·면·동 신고

전남도는 지난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평균 100.7mm(최고 광양 237.2mm, 최저 화순 56.4mm)의 비가 내려 벼 등 침수 350ha, 귀리 등 도복 1627ha 등 약 197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작물에 따라 농약대는 ha당 100만~250만원,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것)는 400만~9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농작물 피해 외에도 지난 4월 말에 2차 생장과 매실 저온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반영돼 오는 13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설작물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돼 2057ha(3755농가) 56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1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조사도 실시해 보리, 귀리, 양파 등 2147ha, 20억원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이달 지급한다. **곽지혜 기자**